

군산 미룡동 고분군 발굴조사

마한유적·초기철기시대 유물 발굴... 2023년 발굴 조사방향 설정

군산시는 14일 해양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마한소국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군산 미룡동 고분군' (2~4세기경)에 대한 발굴 및 시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군산대학교 내 위치한 군산 미룡동 고분군은 군산 서쪽을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월명산 산줄기에 해당하며, 해발 40~45m의 능선을 따라 10여기의 고분이 조성돼 있다.

이번 조사는 시와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한(韓)문화 성립의 한 축을 담당한 마한역사를 복원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발굴조사는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재연구소가 담당했다.

군산 미룡동 고분군 발굴조사를 통해 마한고분 1기와 옹관묘 1기 등이 조사됐으며, 매장주체부(토광묘)에서 원저단경호, 옹관묘에서 철검 등이 발굴됐다. (원저단경호- 마한 토기 일종, 철검- 쇠낫 일종)

이와 함께 주변 시굴조사를 통해 평탄한 곳을 중심으로 주저지 추정지 등 다양한 유구를 확인했으며, 옹관묘를 덮고 있는 갈색 사질토에서 초기 철기시대(BC300~기원전후) 유물이 출토돼 이르기 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마한유적과 초기철기시대 유물의 발굴을 통해 2023년 발굴의 조사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며 "비밀을 간직한 마한역사와 군산의 고대역사를 찾는 귀중한 발걸음이 되었다"고 전했다.



군산시는 14일 해양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마한소국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군산 미룡동 고분군' (2~4세기경)에 대한 발굴 및 시굴을 진행했다.

한편, 시는 군산 미룡동 고분이 2022년 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전복 대비비용을 확보해 땅이 녹는 2023년 봄 조사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남원시 예촌에 위치한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서는 지난 12일, (사)악성 옥보고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제19회째를 맞은 악성 옥보고 거문고 경연대회가 개최됐다.

악성 옥보고 거문고 경연대회 남원서 열려

명인부 김진서·일반부 선채린·고등부 정리엔·중등부 이연주 '대상'

남원시 예촌에 위치한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서는 지난 12일, (사)악성 옥보고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제19회째를 맞은 악성 옥보고 거문고 경연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명인부 4개 부문에서 전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열린 경연이 치러졌으며 수상자는 △명인부 대상(문체부장관상) 김진서 △일반부 대상 선채린 △고등부 대상 정리엔 △중등부 대상 이연주 등이다.

악성 옥보고 명인은 신라 경덕왕 때 옥두 품에 속하는 귀족이었음에도 거문고를 들고 지리산의 운상원(지금의 남원 운봉)에 들어가 50여 년 동안 거문고를 연구하고, 30여 곡이 넘는 거문고 가락을 작곡, 거문고 음악의 기틀을 다졌다.

남원시와 (사)악성옥보고 기념사업회에서는 그 뜻을 기리고, 전통국악을 널리 보급 발전시키기 위해 해마다 거문고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세계유산 고인돌유적 아카이브 미디어월 전시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 대표 고인돌 실감 있게 감상할 수 있어

고창군이 세계유산 고인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람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세계유산 고창·화순·강화 아카이브 미디어월'을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창군이 세계유산 고인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람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세계유산 고창·화순·강화 아카이브 미디어월'을 구축했다.

앞서 고창군은 문화재청의 '2022년 세계유산 홍보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아카이브 대상자료는 세계유산 고창(507기), 화순(596기), 강화(70기) 고인돌유적의 모든 고인돌의 사진, 규모, 형태 등의 정보다.

관람객의 터치를 통해 손쉽게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 또한 1분 30초 내외의 영상을 통해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의 대표 고인돌들을 실감 있게 감상할 수 있다.

아카이브 미디어월은 대전시립박물관 3층 로비에서 11월 30일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12월부터는 고창고인돌박물관 1층 로비에서 관람 가능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고인돌유적에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관람객들에게는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디지털 데이터 구축으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존적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그림자극으로 만나는 환상의 음악여행

김제문화예술회관, 25일 방방곡곡 문화공감 마지막 이야기 진행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는 25일 오후 7시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마지막 이야기 '그림자극으로 만나는 환상의 음악여행' 동물의 사육제 & 피터와 늑대'가 개최된다.

새롭고 흥미로운 그림자극의 세계로 떠나는 듣고, 보고, 즐기는 환상의 음악여행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따뜻한 감성을 지닌 한 인간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음악인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와 프로코피예프의 '피터와 늑대'를 연주하면서 화려하고 역동적인 그림자극을 곁들여 전혀 지루하지 않을 즐거운 시간을 제공한다. 클래식만 좋지만 지루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지극히 익숙해져 자칫 식민해지기 쉬운 요즈음 무대에서 직접 연주하는 사람들을 접하며 따스하고 정겨운 감성을 경험하는 공연이 될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연합회가 주최하고 김제시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예술이 주는 기쁨과 문화를 통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한 공연이다.



관람권 예매는 15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하고,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